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오늘은 아버지주일!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주일로 지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주일예배 시간에 본당에 입장하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어르신으로 이루어진 은빛찬양대와 살롬대학



## 항존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5월 19일(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

제17대 장로 5명 / 제16대 안수집사 / 제15대 권사 선출

항존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5월 19일(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5월 열린 특별 제직회에서 선출한 장로 후보 중 사퇴자를 제외한 장로 후보 8명을 대상으로 OMR 투표를 실시하여 참여 공동의회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6대 안수집사와 제15대 권사를 OMR 투표를 하여 참여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공동의회 투표 방법에서 장로 투표는 장로로 합당하다 생각되는 후보 5명을 기표해

주시고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는 후보 중 적합하다 생각되는 분 모두를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은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2006년 5월 18일 이전 출생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오늘 후보들의 명단과 사진 약력은 오늘 순례자 별지로 배포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선거운동이 발생하면 그 후보는 사퇴 처리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지난주 2부 예배 시 이준원 성도·김지영 성도의 이하린 아기 교회 첫 출석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2교구 김형상 안수집사·최금숙 권사의 외손녀)

## 교적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기

교적 사진 촬영이 703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교적 사진이 10년 이상 오래된 사진이 게재되어 업데이트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방침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회도 개인 동의하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위한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촬영 기간은 31일(금)까지 703호를 방문하셔서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및 다락방은 최신 사진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교구 및 다락방장님은 모든 성도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부모님의 사랑은...



손달익 위임목사

오늘은 아버지주일입니다. 크고 귀한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켰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타락한 생활을 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교 철학과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였고, 사랑과 관심을 그에게 쏟았습니다. 그 결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 후에 신학자가 되어 바울의 뒤를 잇는 정통신학의 가르침을 주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카의 사랑의 헌신과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보여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강에 아이를 버려야 했지만 석 달이나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웠고 모세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역정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였고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를 자처하였습니다. 친모인 것을 들켜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왕의 명령보다 앞섰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죽음과 별보다 앞섰습니다.

Henry Bickersteth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울의 한쪽 편에 세계를 실어놓고 다른 한쪽 편에 나의 어머니를 실어 놓는다면, 세계의 편이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특별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1인 가구, 딩크족, 펫팸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자주 보도 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들을 바라보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이 많이 변화하며 퇴색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 세대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자신의 젊은 날의 삶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영적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 돌봄 등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여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이 '나에게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것', '나와 떨어져 살 경우 자주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 '부모님과 떨어져 살 경우에는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를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효도는 인정과 존중과 친밀함의 유지입니다.

아버지주일을 지내며,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부모님께 찾아가 문안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며 직접 표현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여러 방법으로 전해보는 행복하고 따뜻한 아버지주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이제는 부모님의 교회가 아닌 우리 가정의 교회



추연태 성도 이정미 성도  
추시온 어린이  
(4교구)

시작에 앞서 5주간의 새가족부 교육을 사랑하는 아내 이정미 성도, 그리고 사랑하는 딸 시온이와 같이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잘 적응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신 새가족부 교사 김애리 권사님과 매시간 뜨겁게 말씀 전해 주신 박미라 전도사님,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역자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와 서울교회의 인연은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2003년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같이 다녔던 서울교회, 2015년 결혼을 앞두고 예비부부 교육을 받았던 서울교회, 하지만 정작 저는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서울교회였지 제가 주체되는 교인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아내의 기도에서 저의 마음을 친히 움직여주셨고, 저희 가족을

24년 3월 새가족부 교육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새가족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이제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살기 위해 매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서울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4월 새가족부 수료자는 추연태성도·이정미 성도·추시온 어린이(4교구)와 송정윤 성도(7교구)입니다.

## 강화 유적지를 밟으며 느끼는 하나님의 선교역사



강인녕 성도  
(3교구)

지난 2024년 5월 3일 금요일 3교구와 5교구가 함께 인천 강화군 일대의 기독교 유적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130여 년 전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 덕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의 복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그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늘 궁금했습니다.

강화도 지역의 기독교는 감리교와 성공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강화도의 선교 유적은 주로 성공회 성당 혹은 감리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강화읍 성공회 성당’은 곁에서 보았을 때 1900년에 지어진 한옥식 건물로 보여지지만, 막상 내부에 들어

가 보면 천고가 높은 서양의 바실리카 양식에 따라 지어져 있었습니다. 선교지의 건축 양식을 존중하되, 성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매우 이채로웠습니다. 유배지 강화에 이처럼 큰 성당이 세워진 이유는 초기 선교사들이 이곳을 영국의 이오나(Iona) 섬처럼 신앙의 성지로 삼으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한 강화도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교산교회’도 방문하였습니다. 1892년 가을, 제물포 구역 책임자로 있던 존스(G.H. Jones) 선교사가 강화 남문을 통하여 강화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려 하였으나 강화유수의 완강한 거절로 입성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음해 양사면 시루미 마을 출신으로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이 존스 목사를 만나면서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존스는 이승환의 모친에게 선상에서 세례를 주고 인천에서 활동하던 전도인 이명숙과 전도 부인 백헬렌을 시루미로 파송하여 이승환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교산교회의 앞에는 선상에서 이승환의 모친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배 위에서 첫 세례를 베풀

던 존스 목사의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외에도 평생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개발 및 점자 성경 편찬에 힘쓰신 박두성 장로의 생가와 교동교회, 성공회 온수리교회를 방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초지진을 방문하여, 조선말기 역사의 아픔을 느껴보았습니다. 당시 한양으로 향하는 적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초지진은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 운양호사건(1875년)을 거치며 외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관군의 붉은 피가 물들었던 곳으로, 당시 격렬한 전투의 흔적은 성곽 입구의 소나무에 포탄 흔적으로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변변한 현대 무기도 없이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저항하다 모두 전사했지만, 그들의 투지와 눈빛을 잊을 수 없다는 어느 서양 장교의 말이 초지진 앞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열강의 침략과 함께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유적 답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임종현 안수집사(7교구)



부모님이신 임훈규 은퇴장로·정경자 권사  
임종현 안수집사·김양지 집사  
임원준 아기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저희 부부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아내를 들여보내고 난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10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이를 직접 마주하고 안았을 때, 생각보다 대단한 감동보다는 어안이 병병했던 것과 함께 어색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한 번 길러보지 않았던 제 손에 웬 생명체 하나가 안기어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어색한 현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된 때로부터 190일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아들은 동네 산책 시 지나다니시는 어른들로부터 돌 지났냐는 소릴 들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커오고 있고 저는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부모의 삶이지만 아들을 키우면서 39년 전 이맘 때의 저를 챙기셨던 부모님의 삶을 상상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젖병을 물며 제 손가락을 꼭 쥐고, 품 안에 안겨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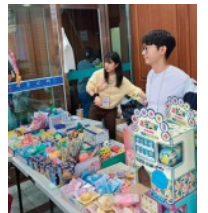
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안기는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실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감히 상상해 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제게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당연히 뭐 그럴것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특별한 경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존재를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고, 정말 깊이 서로 하나 되는 법을 배우는 요즘입니다.

요즘 세상은 결혼과 육아가 당신의 삶을 뒤엎어 삶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겁을 주지만 직접 경험해 본 결혼과 육아는 삶의 상실이 아닌 제 삶의 불완전함을 완벽히 완전하게 해준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한 살도 되지 않은 부모라 39년 부모님의 삶을 온전히 다 이해해 보려는 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앞서가신 부모님의 길을 저도 따라 걸어가며 그렇게 조금씩 관촬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아버지, 어머니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 교회는



## 4강: 인간의 본성 (1)

###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학창 시절에 “국민윤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외웠던 지식 가운데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한 맹자의 인간론을 성선설이라고 하고, 반대로 인간은 처음부터 그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한 순자의 인간론을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하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함을 배우고 익혀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에 서양교육 철학에서도 갓난아기가 처음부터 유전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태어나느냐의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사이에서 일

어난 대표적인 논쟁으로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본유관념(innate idea)’을 주장하였고, 영국의 로크는 ‘백지상태(*tabula rasa*, white paper)’를 주장하였습니다. 본유관념과 백지상태 사이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본유관념과 백지상태 사이의 논쟁 그리고 성선설과 성악설 사이의 논쟁에서 어떤 입장에서 있을까요?

###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는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창세기의 기록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신조 제6문에서도 창세

기 1장의 기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대로 만드셨으며,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서론적 질문에서 언급한 성선설과 성악설 가운데 성경의 입장이 무엇이나고 질문하면서 둘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성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창조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반자”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각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성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 제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6문과 7문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에게 타락한 본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컴퓨터에 일종의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생겨난 것인데-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무엇 때문에 본성이 타락하게 되는 것의 원인이 된 악이 발생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하게-아담과 하와 모두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본성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하는 질문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

는 악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 안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곧 악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다루는 신학이론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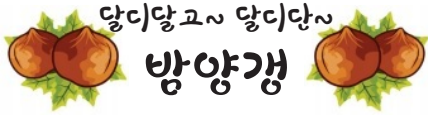
그러나,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셔서-전지전능과는 거리가 멀어서-인간의 죄를 막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이 ‘잘못 사용된 자유의지의 결과’, 그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것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가 본성을 타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런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깟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하게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을 때 타락하였고, 그 결과 인간의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인간이 넘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뻐 동산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방향에서나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무시하고 창조주와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이 불순종을 낳았고, 불순종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낳았습니다.



- 2교구  
이준호 은퇴안수집사·이은희 권사 가정  
(이은희 권사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청년부(회장:이요한)는 오늘 아버지주일  
을 맞아 점심 식사 시간에 밤양갱을 간식으로  
600개 준비해서 배식해 드립니다. 비용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으며 5월 11일  
(토)에 모여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성도여  
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  
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  
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 70인전도대 5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5.1	도르가, 루디아, 뵈뵈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8	마리아
5.12	자원자	바울, 엘리야	5.15	석가탄신일
5.19	자원자	모세	5.22	리브가, 에스더(오후 2시-3시)
5.26	자원자	이삭	5.29	권사회

###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5월13일	월	대하 1-5	민22	시62,63	사11,12	약5
5월14일	화	대하 6-7	민23	시64,65	사13	벧전1
5월15일	수	대하 8-11	민24	시66,67	사14	벧전2
5월16일	목	대하 12-16	민25	시68	사15	벧전3
5월17일	금	대하 17-20	민26	시69	사16	벧전4
5월18일	토	대하 21-24	민27	시70,71	사17,18	벧전5
5월19일	주일	대하 25-28	민28	시72	사19,20	벧후1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람데오 신앙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되게 하소서.
2. 제4대 담임목사님 청빙과정정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17대 장로, 16대 안수집사, 15  
대 권사 등 향존직 선거를 통해 신실한 청지기가 세워지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다스려 주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